

## 서울대학교 영어강의 실태 분석 및 요구조사

### ■ 연구목적

최근 한국의 대학들은 해외 명문대학들과 치열한 글로벌 교육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학도 세계 40여 개국과의 국제교류 협정을 맺고 학술 교류 및 학생 교환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학문 영역의 외국인 석학을 초빙하여 학문,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기준 비전임을 포함한 외국인 교수는 100여 명에 이른다(서울대학교 교무처, 2014).

대학평가에서도 국제화 지수는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세부 평가지표에는 외국인 교수 비율(전임이상),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영어강좌 비율,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등 총 6 가지가 포함된다(중앙일보, 2014). 국제화 평가를 위한 지표 계산법은 <표 1>과 같다.

<표 1> 국제화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2014, 중앙일보)

세부 지표	지표 계산법
외국인 교수 비율(전임이상)	(외국인 교수 수 / 전임 이상 교수 수) × 100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수 / (학부 재학생 수 + 대학원 재학생 수)} × 100 (0~5점)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교환학생 수 / (학부 재학생 수 + 대학원 재학생 수)} × 100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교환학생 수 / (학부 재학생 수 + 대학원 재학생 수)} × 100
영어강좌 비율	(전공강좌 중 영어강좌 수 / 전공강좌 수) × 100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다양성 지수 별도 계산(0~5점)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부교수

국내 상위권 대학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대학의 대학별 국제화 평가 점수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외국인 교수 및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은 고려대가 가장 높고,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은 연세대가,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은 서울대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영어강좌 비율은 상대적으로 서울대가 가장 낮았다.

<표 2> 대학평가 국제화 평가 점수(2014, 중앙일보)

세부 지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외국인 교수 비율(전임이상)	4.6	7.7	6.5	7.6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5	4.2	4	4.6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3.4	6.6	5.1	5.9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3	4.6	5	2.8
영어강좌 비율	5.4	10	10	10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3.4	2.9	3.1	4

국제화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어강의는 영어를 매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영어매개수업(EMCs: English Mediated Classes 이하 영어강의)이라고 한다. 한국 대학뿐 아니라 국외 대학에서도 국제화 전략 및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영어강의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학습자는 교과외 학습 내용뿐 아니라 동시에 목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강용구·홍영기, 2004). 그러나 영어강의는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강의로, 단순히 기존의 수업을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되던 수업을 영어로 바꾸어 진행한다고 영어강의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문영인, 2004).

본 연구의 사례가 된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통하여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 현재 전체 개설 강좌의 약 10%를 영어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재학기간 내에 전공 교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의 외국어 진행 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학사과정 졸업학위 취득이 가능한 규정이 만들어져 영어강의의 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

고, 2014년 1학기 전체 개설 강좌의 12-3%가 영어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8년 신입생부터 ‘영어(외국어) 진행 강좌 의무 이수제’가 적용되어 졸업을 위해서는 전공 3학점(1강좌)을 포함하여 평균 9학점(3강좌) 이상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수강해야만 한다. 국내 다른 대학에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영어가 중요시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학생들에게 졸업 영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김민정, 2007).

2007년 서울대학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강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영어강의를 통해 자신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홍성연 외, 2008). 영어강의에 관한 요구와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내는가 하면 영어강의가 영어능력 향상과 전공 지식 습득의 측면에서 효과적인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영어강의의 도입에 대한 본래의 취지인 학습자의 인지적·학문적 언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학의 지원 정책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서울대학교의 영어강의 운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운영되었던 영어강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어강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영어강의가 운영되기 위한 개선 방안도 탐색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강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어강의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지원 방안과 다각적인 영어강의 지원 정책도 모색하였다.

## ■ 영어강의 운영 현황

본 연구를 위하여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운영된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영어강의 개설 수 및 수강생 수, 단과대학별, 교과 구분별, 교양 세부영역별 영어강의 개설 수와 수강생 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강이자 국적에 따른 개설 강좌 비율 및 수강생 수, 학점 분포별 수강 수, 재수강 비율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부의 경우, 외국어 강의 대비 영어 강의의 비율은 93%이상으로 2005년 이후 증가하였고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의 수보다 약 1.4배에서 2.2배로 많으며, 그 차이는 2007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정원 외 기타 전형을 제외한 정시, 수시(특기자, 지역균형), 외국인 전형의 경우 모두 영어강의 수강생이 증가하다가 2013

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과대학별 분포를 보면 필수 과목인 ‘대학영어’를 포함하는 인문대학이 전체 외국어 강의 중 약 70%의 비중으로 개설되고, 그 다음으로 사범대학과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7년 이후 인문대학의 영어강의 개설 비율은 다소 줄어든 반면, 공과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 개설하는 영어강의의 비율은 10~20%로 증가하였다.

또한 교과구분별 수강생 수는 교양과목이 전체 영어 강의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전공교과목을 영어강의로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전공 및 일반 교과목의 영어강의 수강 비중이 높아져서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일반선택 순으로 수강자 수가 많았다. ‘대학영어’ 과목을 포함하는 학문의 기초 영역은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일반교양 영역과 핵심교양 영역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강생의 국적을 보면 한국인을 제외하고 2003~2006년에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볼리비아, 몽골, 영국 국적의 학생들이 영어 강의를 많이 수강하였으며, 2007년 이후에는 말레이시아의 학생 비율이 늘어났다. 학점 분포를 살펴보면 C, D 학점과 F학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재수강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 외국어 강의 중 영어강의 비율은 96%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 국제대학원,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경영(전문)대학, 법학전문대학 순으로 영어강의 개설 비율이 높다. 영어로 개설되는 전공필수와 일반선택 과목은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어강의 수강생들의 국적은 80% 이상이 한국인이었고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몽골, 베트남,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강의 수강생들의 학점 분포는 A, B 학점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재수강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영어강의에 대한 학부, 대학원의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면 한국어강의와 비교할 때, 영어강의에 대한 수강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기초교양과목이나 전공 강의 모두 영어강의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외국인 교수자가 한국인 교수자에 비하여 학생들의 수강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강의주제에 대한 흥미유발,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 과제에 대한 피드백 수준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외국인 교수자의 영어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 교수자 요구 분석

영어강의에 대한 교수자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 면담과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수자들은 영어강의에 대해 국제화나 학교의 방침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준비 없이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영어강의가 지식 전달 측면에서는 다소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영어강의를 통하여 자신과 학생의 학문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강의가 학생과 교수자의 영어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면 영어강의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 ■ 학습자 요구 분석

학생들은 영어강의 수강 여부를 학생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졸업 규정에 두고 있는 점에서는 불만족을 나타냈지만, 영어강의로 인한 장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접하지 못하였던 영어로 교재 읽기나 영어 글쓰기 과제나 영어발표 등을 수행한 경험, 외국인 교수의 시각으로 분석한 강의 수강 경험, 외국인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 매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수자의 영어교수 역량이 낮은 경우 수업의 질이 매우 저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수자의 영어 교수 역량이 선행되어야 영어강의의 본래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영어강의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영어강의 필수 이수 교과목을 전공내용의 심화학습이 필요한 전공교과목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교양교과목의 개설을 통하여 교양교과목에서 영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기초 교양영어뿐 아니라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다양한 교양교과목이 영어강의로 개설되어 영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특히 과제 및 학습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용이한 소규모 강좌 개설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내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학내 영어카페 개설 및 영어권 교환학생 제도를 확대하여 영어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원어인 교수의 수를 늘리고 외국 석학들의 공개 강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외에도 비정규교과

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방안도 제안하였다.

## ■ 제언

서울대학교는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2003년 이후 영어강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영어강의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내 구성원들이 영어강의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인식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수나 학생 모두 영어강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영어강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분명치 않았다. 특히 학생들은 영어강의 수강 여부를 학생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는 점 때문에 영어강의의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혹은 서울대학의 국제화 지표를 높이기 위하여 영어강의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학내 구성원에게 인식시키고 공감을 얻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영어강의의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영어강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학교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영어강의를 운영 자체만이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담당할 TF 팀 혹은 '국제화 발전 기획단(가칭)'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공교과목을 영어강의로 개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교수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교수들이 영어강의를 떠맡고 있는 사례가 많다. 학생들이 교수자의 영어교수 역량이 효과적인 영어강의 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제안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입교수 임용 시 영어교수 역량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교수를 위한 인센티브나 지원 정책, 학생의 영어 활용 기회를 확대하려면 기숙사 지원 문제,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능력 검증 등의 문제들도 영어강의 운영과 확대를 위한 고려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강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강의 확대를 위하여 단순히 영어강의의 수를 늘리고자 교수자에게 단순히 인센티브를 높여서 제공하는 방안은 매우 단편적이다.

국제화를 위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교수자와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과의 사정에 따라 영어역량이 부족함에도 어쩔 수 없이 영어강의를 떠맡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어가 아닌 전공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심화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영어 실력이 영어강의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자들이 영어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업 내용과 방법상에 변화를 시도하고 학생들에게 토론의 기회와 피드백을 자주 제공하여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교수자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을 넘어서 학교의 수준에서의 지원체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수자의 영어 교수 역량이 영어강의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영어강의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히 영어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영어강의 운영자에 대한 수업 시수 감면, 영어강의 수업 컨설팅 제공의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외국어 강의를 포함한 영어강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영어강의에 대한 교수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학내 교육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과 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향후 서울대학교의 영어강의 및 국제화에 대한 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희원(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부교수)

공동연구자 : 민혜리(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부교수)

연구 조 원 : 이미숙(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박소현(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김우연(영어교육과 석사)

※ 본 연구는 2014년 서울대학교 학사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